

로스(Dorothy Ross)의 논의를 통해 본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문제

백 창 재 | 서울대 정치학과
정 병 기 | 서울대 기초교육원

이 글은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며, 한국 사회과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온 미국 사회과학의 성격을 파악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자 했다. 그중 미국 사회과학에 대한 논의는 미국 사회과학의 성격을 엄밀하면서도 비판적으로 밝힌 것으로 인정받는 로스의 분석에 의거했다. 한국의 사회과학은 한국 사회에 지배적인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경시하고 학문적 관심이 현실에서 유리됨으로써 독자적 학문으로 정립되지 못했다. 또한 학문의 보편성과 과학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한국의 특수성에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서구, 특히 미국의 이론과 방법론에 의존하는 경향을 띠어왔다. 반면 로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과학은 유럽이라는 구대륙과는 다른 미국의 특수성들을 천착하고 미국사회의 가중 중대한 사회문제들과 씨름하면서 미국만의 새로운 이론과 방법을 발견해내려 했다. 그 결과는 특수성 고찰에 따른 미국예외주의의 확립과 지배적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과 반성을 통해 미국 사회과학이 나름대로의 보편성과 역사성을 발전시켜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회과학의 보편성과 역사성이 과연 한국에도 유관적합한 것인가는 철저한 점검과 반성을 필요로 한다. 사회과학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회'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다른 사회에서 다른 과학적 방법들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진정한 보편성과 역사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정체성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과학의 정체성, 한국 사회과학, 미국 사회과학, 미국 예외주의, 로스

사회과학이란 문자 그대로 사회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여기에서 사회란 인간들로 이루어진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과학은 인간 개개인과 인간들의 집단이나 조직 혹은 그들에 의해 전개되는 사회현상과 가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사회과학은 근대의 산물이다. 철학과 자연과학이 고대 희랍에서부터 꽃을 피웠다면 사회과학은 근대 사회에 시작되어 현대에 와서 꽃을 피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인간사회에 관한 연구가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로 확립된 것은 아니었다. 근대가 시작되어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회과학의 초점과 관점도 변천을 거듭했으며 그에 따라 사용되는 용어도 달라졌다.

가장 먼저 등장한 용어는 독일에서 사용된 정신과학(Geisteswissenschaften)이다. 이 용어는 인간사회는 자연과 달리 정신적인 것이라는 사고에 기반했다.¹⁾ 역시 독일에서 사용된 것으로 두 번째 등장한 용어는 인문과학(혹은 문화과학, Kulturwissenschaften)으로, 정신의 운동 자체보다는 정신운동의 산물에 더 중점을 두는 사고에서 비롯되었다. 두 용어는 모두 자연과 인간을 대립시켜 사회과학이 자연과학과 다른 학문 분야임을 강조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후 프랑스에서는 인간과학(science humaines)이라는 말이 쓰였다. 이 용어는 인간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관점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식 사고와는 사뭇 달랐다. 정신과학과 인문과학이 독일식 관념론의 소산이라면, 인간과학은 자연에 근거해서 인간을 보기도 하는 프랑스식 유물론의 관점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현상을 자연현상과 독립적인 것으로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인간과학도 인간사회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삼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과학 발전의 중요한 계기를 형성했다.

사회과학(social sciences)이라는 용어가 처음 쓰인 것은 17-8세기 영국에서였다. 자연과학과 일정하게 구분하여 인간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성립이 독일에 이어 프랑스에서 먼저 발전함으로써, 대륙 유럽의 학문 전통이 생겨났다. 그러나 가장 늦게 발전한, 영국의 인간사회 연구가 사회과학으로 성립한 이후에는

1) 사회과학 용어 변천에 대해서는 水田洋·長洲一二(1995, 19-24) 참조. 자연과학과 분리되는 용어로서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J. S.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도덕과학'에 대한 대응으로서 딜타이(Wilhelm Dilthey: 1833-1911)가 『정신과학 입문』(Einleitung in die Geisteswissenschaften, 1883)에서 체계화한 것이었지만, 정신과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미 18세기 훨씬 이전이었다.

거꾸로 대륙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특히 영국의 사회과학은 근대 사회의 발전과 함께 특유의 경험론적 전통에서 비롯됨으로써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가장 빠른 발전을 보였다. 영국에 이어 대륙 유럽에서는 근대 사회과학을 가장 먼저 발전시킨 프랑스의 경우,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갈등과 결부된 사회학이 중심이 되었다. 반면 독일에서는 국가와 사회 간의 뒤늦은 대립으로 인해 법학과 역사가이 먼저 발전하였다. 그 후 미국에서도 이러한 유럽의 학풍이 전파되어 사회과학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 사회과학은 더욱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분과학문들로 가장 먼저 분화해 갔다.

한국에서 사회과학의 수용은 단편적으로 20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현대적 의미의 사회과학을 수용한 것은 해방 후부터이며, 더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이 성립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부터 외래 사회과학을 도입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950년대 후반부터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학술 및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외국 유학이 활발해진 것이 그 시초였다. 미국 유학의 확대는 당시 미국의 행태주의적 조류에 영향을 받아, 기존의 전통적 사고와 문화에 따라 법학과 정치학 중심이었던 한국의 사회과학 지형을 사회조사방법론에 입각한 교육학과 사회학의 발전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가져오기도 했으며, 미국의 정치문화와 자유민주주의 사상의 본격적인 수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생 독립국가의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이러한 발전과정도 서구와 같은 비판적 학문이라는 사회과학의 정체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60년대에 들어와 새로운 학문적 변화가 생기기 는 했지만 정치사회적 배경은 더욱 악화되었다. 5·16 쿠데타로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이 국가 권위를 통해 사회부문을 더욱 강력히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과학의 새로운 변화는 공업화 추진에 따른 경제학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경제학은 학문의 고유성과 가치판단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거론해보지 않은 채 생산력 중심의 방법론적 이론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한 것이었다(황성모 1983, 294; 김경동 1986, 6). 이와 같이 한국 사회과학의 전반적인 발전과정은 한국 정치와 사회의 특수한 발전과정의 범주 안에 경계지워졌다. 그 직접적 결과는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사회과학이 부재한 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학문 선진국들로부터 도입된 도구적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이 구획화되는 것이었다. 한국의 사회과학들은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과학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이 글은 한국 사회과학, 혹은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쓰여졌다. 사회과학 분과학문들의 다양성과 구획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논의는 많은 사회과학자들 간의 상호이해와 소통, 그리고 공동작업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필자 둘의 노력은 다분히 시론적일 수밖에 없다. 포괄적이고 통찰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구체성과 깊이를 갖추기는 어렵다. 이 한계를 감수하면서 이 글은 다음 둘을 논의한다. 첫째는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둘째는 한국 사회과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쳐온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과 정체성, 곧 미국 사회과학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다. 전자는 포괄적인 작업이 될 것이며, 후자는 로스(Dorothy Ross)의 분석에 의거할 것이다.

I.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논의

1. 정체성 논의의 흐름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반성을 토대로 1980년대의 새로운 연구 및 독자성 확립의 시도를 거쳐 1990년대에 와서 그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된 척박한 학문 토양에서 그 논쟁은 아직 분과학문 범주 내의 노력을 벗어나지 못하여, 계열학문으로서 사회과학의 정체성 논의는 2000년대에 와서야 가능했으며, 아직도 그 수준은 시론(試論)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1970년대에 시작된 한국 사회과학 정체성 논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77)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77) 및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1979)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77)는 방법론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을 소개했으며, 다른 경우는 한국 사회과학에 관해 연구대상과 경향을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이 문헌들은 당시 정치계의 '한국적 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담론과 맞물려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를 화두로 기획되었다. 그러나 토착화 논의는 한국적 정체성을 가진 학문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론을 한국에 적용시키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곧 한국사회과학연구소(1977)는

분과학문 중심으로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데 머물러, 외국 이론이 “우리의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황성모 1983, 294).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77)와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1979)는 반성 자체에 의미를 두고(황성모 1977) 발전을 위한 제언과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계열학문으로서의 사회과학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지 못했고 토착화 개념에서도 더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반성을 계기로 1980년대에는 홍승직(1981)에 의해 경험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홍승직은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현실을 파악하고 정체성 확립을 시도했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1983)는 방법론 논의를 이어갔고, 김경동·안청시 교수(1986)가 이 방법론 논의에 가담했으며,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3)는 사회적 배경이 열악함을 지적하면서 긴 여정의 한국 사회과학 논의를 시작하였다.²⁾

그러나 홍승직의 새로운 시도는 1970년대까지 논쟁된 토착화 논의를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데에서 더 발전되지 못했다.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1983)의 방법론 논의도 북한의 통일 정책 분석, 노인에 대한 아동의 태도, 현대 농민사회와 양반에 관한 논문 등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했고 22명의 학자들이 참여한 방대한 시도였지만, 역시 각자의 테마를 가지고 외생적 방법론을 설명하는 데 머물렀다(황성모 1983, 294-5). 같은 해에 발간된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1983)의 문헌은 서장에서 사회과학 일반에 대한 논의를 시도했으나 방법론에 관해 정리한 차원이었으며, 그밖에는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총체적 분석 없이 한국 사회과학 내 분과학문들의 경향을 나열적으로 소개하는 데 만족했다. 김경동·안청시의 편저서(1986)도 도입 부문에서나마 한국 사회과학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역시 분과학문별로 당시의 경향을 소개한 문헌이었다.

1990년대는 1980년대의 논의를 이어가면서 그 깊이를 더하고 범주를 넓혀간 시기였으며, 무엇보다 1950년대 한국에 등장한 맑스주의적 연구 경향이 사회과학 정체성과 관련해서도 연구업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먼저 1994년에 성균관대학

2) 이후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는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과학에 관한 문헌들을 발간해 왔다.

교 사회과학연구소(1994)가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는 한편,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94)가 같은 해에 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를 개관하면서 1980/90년대 비판학문에 대해 평가하였다.³⁾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고찰의 시각을 대조적으로 했을 뿐, 사회과학에 대한 총체적 분석 없이 사회과학 내 분과 학문들 일반의 경향만 나열적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했다.

한편 윤근식·서규환·김일영(1995, 277-375)은 이듬해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과학의 성립사에 초점을 두고 방대한 분량의 논문을 발표하여 한국 사회과학의 역사적 분석에 기여하였으며, 임희섭(1999) 등은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야심작을 내놓아 논의의 획기적인 발전을 꾀했다. 그렇지만 이 업적들도 사회과학 일반에 대한 논의에서 장족의 발전을 보인 반면, 한국적 사회과학이나 한국사회과학에 대한 언급은 논문 한 두 편 혹은 지엽적 논의에 그친 아쉬움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1990년대의 한국 사회과학 정체성 논의는 이 십년 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2000년에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가 발간하는 『사회과학논평』(제19호)에서 심도있는 논쟁으로 이어졌다. 그중에서도 이 시기 사회학회의 정체성 논의는 가장 선도적으로 평가되었다(임현진 2000 참조).

2000년대는 한국 각 대학들이 계열별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 사회과학 소개서를 다투어 내놓고 한국 사회과학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이다. 가장 먼저 연세대학교(2000)가 전공선택의 길잡이를 펴냈고, 이어 이화여자대학교(2005)가 입문서를 발간했으며, 성균관대학교(2007)가 새로운 소개서를 내놓았다.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연 이택휘(2004)의 논문은 한국 사회과학자들에게 뼈아픈 반성의 계기를 제공했다. 또한 같은 해에 이기홍(2004)도 토착화의 논리를 비판하면서 한국 사회과학의 과학성 결여를 비판하는 논문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성을 촉구했다. 분과학문별로도 서규환(2007)의 최근 논문은 1999년 임희섭 편저에 실린 이정복 교수(1999)의 한국정치학 논의를 발전시켜 비판적으로 논고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각 대학들이 출판한 사회과학 소개서들은 서론 논문으로 사회과학 전반

3) 김동춘(1997)도 이러한 경향의 시도로 꼽을 수 있지만, 이 문헌은 사회과학에 대한 논의라기보다 한국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서이다.

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한 후 분과학자들을 병렬적으로 소개한 문헌들로서 한국 사회과학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정도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만 논문으로 표출된 논의들은 상당한 수준의 비판적 안목을 담고 있어 향후 한국 사회과학 정체성 논의를 크게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도와 논쟁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논의의 내용

1950년대 중기 이전의 한국 사회과학은 일제의 엄혹한 시기와 전쟁의 고난 속에서 사회가 발전되지 못한 만큼 학문적 발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에 가능했던 방법은 역사적 연구에 국한되었으며, 외국이론의 적극적 소개에 관심을 보인 것도 극히 소수의 학자들에 불과했다(이만갑 1979, 18). 한국 전쟁이 끝날 무렵에야 미국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조사방법론 등 새로운 사회과학 연구가 도입되었다. 정치사회적 배경으로나 학문 발전상으로나 사회과학적 토양이 형성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외국의 이론 소개가 가지는 의미는 적지 않았다. 서구 선진국의 발전된 이론들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기획하고 추동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무하다시피 한 한국 사회과학의 토양에서 도입된 서구 이론들은 이후 거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한국의 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오랜 권위주의 정치로 인해 서구의 이론들조차 설명력이 극히 제한된 절름발이 이론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에서 서구이론의 이념적·사상적 지배력은 유지되었다. 따라서 서구 사회과학의 비판적 성격은 한국 사회과학에서 작동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권위주의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기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판적 사회과학자들 중에서 문제의식이 나타나기도 했다. 서구 이론의 한국적응과 관련해 미국으로부터 이식된 사회조사방법론에 대한 비판이 1970년 추계사회학대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조차 대부분 방법론 내의 연구절차상의 문제제기였으며, 이마저도 이미 미국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복하는 수준이었다(이만갑 1979, 24).

그렇지만 자성적 의식의 태동이라는 면에서 이러한 시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곧 1970년대 중후반에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1981년도 홍승직의 연구는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의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홍승직 1981, 27-8), 1978년 1월 서울과 각 지방에서 국립대학교와 사립대학교를 하나씩 선정하여 사회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인류학자 등 55명의 사회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사회과학의 토착화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결과 토착화에 대한 동의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설문의 내용은, “어떤 학자들은 문화적 배경과 전통의 차이 때문에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이 다른 사회의 사회적 실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보다 민감한 ‘토착화’ 이론과 모델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1)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2) 만약 동의하신다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토착적’인 이론이나 모델에 어떠한 가치관들이 고려되어야 합니까?, (3) 우리나라의 사회과학 지식은 우리 고유의 지적 전통에 얼마나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홍승직 1981, 27).

첫째 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자는 35%(19명)였고,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사람은 44%(24명)였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16%(9명)였다(무응답, 3명 5%). 둘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역사와 현실을 중시하는 응답자가 51%(28명)였고, 서구이론을 우선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24%(13명)였다(기타 14명 25%). 그리고 셋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오늘의 한국 사회과학이 한국의 지적 전통과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9명으로 전체의 71%였다. 곧 한국의 사회과학이 한국의 지적 전통과 연속적 관련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희망과, 서구이론을 소화하여 한국의 역사와 현실에 맞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학자들이 압도적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착화 정서는 당시 한국 사회과학계의 주된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황성모(1977, 239)에 따르면, 한국 사회과학에 대한 반성 자체는 과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국의 사회과학이 의식구성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가졌는가하는 문제는 일종의 금기사상이었고” 그에 따라 이 문제에 관해 “표면적으로는 흥미상태를 계속해 왔”는데, 그것은 “해방과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사정”, “한국 사회의 정치·경제적 전근대성”, “세계적 규모의 냉전체제에 의한 일반적 영향”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곧 객관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또는 객관적 조건의 일정한

변화에 따라, 사회과학자들의 주체적 의식의 변화가 과학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이와 같이 서구 이론의 수용에서 그에 대한 비판과 토착화 시도로 전환된 논쟁은 이후 좀더 구체화된 논의로 옮겨갔다. 먼저 서양 사회과학의 국내 유관적합성 문제를 둘러싸고,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즉 이론과 역사, 이론과 현실, 연구방법의 부적절성, 역사성의 결여 등 학문 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과 국가 내지 정부의 관계를 두고도 자율적 입장, 협력 관계, 심지어는 어용학문의 지위 등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으며, 더 나아가 방법론상의 접근법과 자세에 대해서도 논쟁과 비판이 제기되었다(김경동 1986, 6).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한 켠에서는 김경동 교수처럼 이 논쟁과 비판 자체를 특정 학문, 특히 미국학문 중심으로만 비판이 행해진다는 점을 파악하고, 비판조차도 외국의 비판 조류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비판의 무비판성 혹은 종속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김경동 1986, 7).

198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점차 토착화 논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정체성 논의가 진척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해방 이후 이어져 온 주류 사회과학이나 1980년대에 등장한 비판적 사회과학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논의에 의하면, 과거의 토착화 논리는 실증주의 과학관의 '법칙 연역적 설명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한국의 사회과학은 이 모델에 따라 서구의 선진 이론을 한국의 경험적 자료로 검증하는 가설-검증 형태의 연구에 치중해 왔다는 것이다(이기홍 2004). 그리고 토착화에 관한 황성모의 낙관적 전망은 "한국 사회과학의 자기반성사에 대해서 엄밀한 학사적 논증을 가지고서 주장하고 있지는 못하는" "일종의 인상비평"이라고 비판받았다(서규환 2007, 2). 비판 사회과학계도 새로운 시도로 한국 사회를 분석하기는 했으나, 역시 자본주의 비판의 일반이론에 따라 구조에 초점을 맞추므로써(김동춘 1997, 13-4), 서구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는 수준을 반복하거나 한국에 적용이 가능한 새로운 외생적 비판 이론을 찾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소 극단적 비판에 따르면,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논의는 다시금 "새로운 학문 사조를 열렬히 떠받들다가 순식간에 다른 것을 넘보는 유행 추구적 학문 경향"(김문조 1999, 201)과, "개념화에서 일반화에 이르는 분석과 설명의 과정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진단과 처방에 이르기까지 서구추종 현상"(임현진

2000, 43)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표현된다.⁴⁾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개념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서양이론을 우리 사회에 적용하고 그 이론을 우리의 사정에 맞게 수정 또는 재구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유한 사상체계에서 사회이론의 단초를 발굴해내어 그것을 중심으로 이론체계를 세우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넓은 의미의 토착화 약속은 50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그렇다면 이는 목표 자체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었다(이기홍 2004, 41). 서구의 이론을 도입하여 한국의 사회 현실에 가설-검증의 방법으로 적용하는 형태는 한국 사회 현실에 작용하는 갖가지 객체들 가운데 서구의 ‘선진 이론’에 개념적으로 추상화되어 있는 객체만을 현실에서 찾아볼 뿐 ‘선진 이론’에 사상된 개체들은 포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이기홍 2004, 54-5).

한편, 1990년대는 1980년대 후반 한국의 민주화와 동구권의 몰락이 유사한 시기에 일어남으로써 한국 사회과학에 막대한 영향이 작용한 시기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 포스트 증후군이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사회과학에 대한 성찰의 노력이 또 다른 색채를 띠고 진행되었다.⁵⁾ 한국의 주류 사회과학 방법론은 한국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취급하지 못하고, 변화에 대해 무관심하며, 가치판단을 경시하고, 주체적 발전방향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제를 성찰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판단이었다(문태현 1993, 74).

분명히 1990년대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한국 사회에서도 서구와 같이 탈근대적 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미시적 권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시민사회의 비중과 영향력이 커지면서 사회적 권력을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향을 보인다. 페미니즘과 소비자 및 네티즌의 영향력이 새로운 사회권력의 행위자로 부상하는 추세이다. 저자와 권력 주체보다 독자와 다양한 대중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현상을 설명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한국적 상황에도 유용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에 따라 1990년대 도입된 포스트모더니즘 패

4) 물론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가 1980년대에 총론 수준에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한경구 2000, 116)도 없지 않지만, 이러한 평가가 다수 견해는 아니다.

5)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과학 패러다임을 계열학문적 관점에서 소개한 연구로는 김용학·전효관(1994), 이용필(1999), 임희섭(1999)가 대표적이다.

러다임들은 한국의 탈근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의 도전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근대성을 전적으로 탈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미 서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Rosenau 1992, 180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도입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들은 근대성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일부 탈근대성을 띠는 현상들에 포스트모더니즘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결국 또 다시 새로운 외생적 이론을 한국에 적용하여 설명하려는 구습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하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근대적 민주화와 합리성이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한 전근대적인 현상도 보이고 있다(문태현 1993, 80). 역사가 압축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근대성과 탈근대성이 공존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 사회과학은 근대성과 탈근대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을 근대성의 병폐를 치유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추진해야 할 근대화의 작업으로부터 이탈시키는 역기능을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이정복 1999, 46).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 패러다임들은 이러한 복합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과학의 지평을 넓히는 수준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문제의식과 과학성

긍정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과학과 한국 사회과학 분과학자들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반성과 노력들이 지속, 진전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노력들은 다분히 추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고, 엄혹한 한계 내에 갇혀있다는 인상을 준다. 문제의식과 방법의 양자에 있어서 대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외래 이론의 강력한 영향 하에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들을 발견하고, 밝히고, 해결하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예컨대 19세기 중반까지 서구사회과학의 화두는 진보와 역사발전이었고, 19세기 후반 들어 서구 사회과학은 계급갈등의 문제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이 속에서 고전파 경제이론, 스펜서류의 사회발전론과 다윈주의 사회이론, 그리고 마르크스주의가 탄생했다. 당시 사회과학자들이 가장 주목

했던 당시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에 대한 천착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후대에 남겨진 사회과학 이론들이 개발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과학 이론이 생기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무엇이 이 시대 한국사회에 가장 중대한 문제인가? 이것은 수입된 이론들이 제기하는 문제 속에서 찾아질 가능성보다는 이 이론들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들이 수입되지 않았다면, 미시적 권력에 대해 우리가 그토록 중시하게 되었을까?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 권력의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되었나? 포스트적 현상들이 이 시대 우리사회에 그토록 중대한 현상일까?

60, 70년대 우리 사회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아마 개발 독재와 연관된 문제였을 것이다. 근대화의 관리, 개발과 민주주의의 딜레마, 개발속의 과실 분배 등이 당시 한국 사회과학이 한국사회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제시해야 했던 주제이자 문제의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들이 당시 한국 사회과학의 지배적 문제로 인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사회과학자들 대다수가 주목해야 할 지배적인 사회문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되고 거부되기도 한다. 학자들 각자가 천착해야 할 문제가 있고 각자가 독자적인 문제의식에 따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대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주장도 용인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회과학자가 사회 현실에서 유리되는 것이고, 문제의식 자체가 잃게 되는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독자적인 한국 사회과학의 가능성은 사라진다.

둘째는 방법과 연관된 문제이다.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 논쟁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는 개념은 학문의 보편성과 과학성이다. 실증 과학의 보편 이론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한국적 사회과학이란 것은 존재할 수도 없고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수입되는 과학적 서구 이론은 보편적 이론이며, 타당한 서구 이론들을 한국 사회에 적용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한국 사회과학계가 과학적 이론을 수립한다면, 이는 서구 이론들과 마찬가지로 보편성을 지닌 것일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만 적용되는 독자적인 한국적 사회과학이란 것은 과학이 아니며 지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과학주의의 요구(imperative)를 넘어서지 않는 한, 한국적 사회과학이라는 정체성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제의식의 중요성을 발견하고 과학주의를 넘어서려는 작업의 첫 걸음으로 이 글은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한국 사회과학에 보편성과 과

학의 요구를 부과하고 있는 근원의 상당 부분이 미국 사회과학이기 때문이다. 미국 사회과학 역시 당대 미국사회가 지녔던 중대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대응이었고 이 과정에서 과학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한국적 사회과학의 정체성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해줄 것이다.

II.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1. 로스(D. Ross)의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미국에서 사회과학이 시작된 것은 18세기와 19세기 초반 유럽에서 발전된 정치경제학과 정치과학(political science) 및 사회학 모델의 수입과 적용을 통해서이다. 미국의 사회과학은 새로운 역사의식으로부터 생겨나서 자본주의 사회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형성된, 역사적 세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18세기에 근대사회의 성격과 미래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기원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 사회과학은 형성된 이후에는 더욱 독자적으로 발전하면서 과학적 기법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분과학문들로 가장 먼저 분화해 갔다. 1929년까지 진행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추적해 간 것이 로스의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이다.

바버가 지적했듯이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은 “대단히 야심 차고 통찰력있는 작업이다”(Barber 1992, 891). 출판 당해연도에 이미 미국의 주요 경제학·사회학·정치학 학술지들이 이 책에 주목했다. 사회과학의 주요 4대 학술지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실었으며,⁶⁾ 이후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만을 보더라도⁷⁾ 이 책을 인용한 논문이 10여 개 이상 발견된다. 이러한 관심의 폭증에는 무엇보다 주제 자체의 중요성이 컸고 저자의 시도가 대담하면서 광범위했기 때문이다.

6)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 No. 5 (March 1992);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No. 2 (June 1992);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 No. 2 (December 1991); *Sociology* 25, No. 3 (August 1991) 등.

7) 예컨대 Wald 2002; Bateman 2001; Leonard 2003; Graff 2001; Hopf 외 1993; Murphy 1996; Mohr 외 1997; Tobin 1995; Gaddies 1997; Dimand 2000; Oren 1995.

로스는 이 작업을 위해 대단히 방대한 1차 자료와 2차 자료들을 동원하여 문화적·정치적·제도적 맥락에서 진행되어온 미국 사회과학계의 논쟁들을 엄밀히 추적하였다. 미국의 사회과학은 역사과학보다 자연과학에 더 경향지어지고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고전적 이데올로기에 각인되어 있다. 미국 사회과학을 구분 짓는 이러한 특징들은 '미국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라는 미국식 국가주의 이데올로기(nationalist ideology)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로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미국은 세계 역사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이 이데올로기가 미국의 청교도이념과 자유주의 및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각인되어 왔으며 미국 사회과학의 발전경로를 규정해 왔다는 것이다.

로스의 접근방법은 미국 사회과학의 중심적 발전노선을 포착하여 범주가 되는 담론을 재구성하는 지성사적 방법이다. 그는 이 접근방법을 미국의 역사와 사회과학을 연결시키고 사회과학자들이 지닌 가치와 전제들을 역사 속에서 탐구할 때 나타나는 역동성을 발견하려는 시도로 규정짓는다. 이 때 담론은 근대의 사회와 정체(polity) 및 경제 문제들을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학문적 논의와 미국의 예외적 지위에 관한 국가 차원의 토론에 한정된다. 그에 따라 로스는 역사적 전환점마다 담론을 이끌어온 주도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적 담론들을 소개하고 평가한다.

분과학문과 관련해 로스는 주요 관심 부문은 경제학과 사회학 및 정치과학을 핵심 사회과학으로 규정한다. 때문에 역사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른 사회과학 분과 학문들은 체계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각 분과학문들과의 연관 속에서 시기에 따라서는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기도 한다.

2. 미국 사회과학의 기원

근대성의 발견은 사회과학을 이해하는 근본적 맥락이다. 태동기 사회과학은 종교로부터 해방된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근대성에 대해 높은 기대, 그리고 미래의 역사변화에 대한 우려를 근저에 깔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주의는 대륙 유럽에서 19세기 초까지 사회과학의 토대를 구성했으며 사회과학의 과제 자체를 부여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티즘, 세속적 계몽주의, 공화주의 정치 담론, 낭만주의 등 대

특 유럽에서 역사주의로 발전해간 많은 문화적 요소들이 미국에도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요소들이 미국에서는 역사주의로 발전해 가지 않았다. 미국인들은 국가 정체성을 수립하는 데 몰두하여 색다른 역사의식을 개발했고 이와 함께 상이한 사회과학 전통을 수립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유럽의 역사주의를 동시대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미국 혁명을 프랑스 혁명과는 달리 성공적인 것이자 완결된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미국 사회과학은 미국적 기원이라는 뚜렷한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그에 따라 자유주의적 가치, 실용주의적 경향, 회박한 역사적 상상력, 기술에 대한 신뢰 등이 이후 미국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각되었다. 곧 미국 사회과학에서 매우 특징적인 점은 대륙 유럽처럼 역사과학이 아니라 이후 영국과 같이 자연과학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라는 고전적 이데올로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은 영국 역사의 근대적 발전과도 다른 새로운 미국적 신념으로 이어졌다.

로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과학이 이렇게 독특한 성격을 갖게 된 것은 미국이 역사상 예외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신념, 곧 미국 예외주의 국가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있다(Ross 1991, 22-30). 미국예외주의 이데올로기는 신대륙에서 성공을 거둔 독립과 입헌 공화정의 수립을 역사의 완결로 이해했으며, 따라서 미국은 구대륙처럼 앞으로 역사변화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역사 속에서 미국이 독특한(unique)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미국 예외주의 비전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는 질적 변화의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 제도들의 정교화와 양적 팽창이며 역사 밖에 존재하는 불변하는 신의 계획을 신봉하는 초역사주의적(prehistoricist) 경향을 지닌다.

미국을 신의 섭리와 자연법의 구현이라고 믿었던 이러한 종교적, 도덕철학적 신념은 19세기 들어 사회 전반적 세속화의 흐름 속에서, 그리고 남북전쟁을 겪고 산업화를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미국 예외주의를 도덕철학과 신학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지탱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객관적 과학으로 이 역할을 하려 한 시도에서 미국 사회과학의 분과학문들이 형성되었다는 것이 로스의 주장이다(Ross 1991, 53-64). 먼저 역사정치학과 정치경제학이 오랜 도덕철학적 전통으로부터 독립된 분과학문으로 수립되었고, 동일한 토대에서 사회학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예컨대 미국 민주주의의 기원을 튜톤(Teuton)의

제도에서 찾으면서 역사적 완결성과 자연법의 구현임을 밝히려던 데서 역사정치학이 비롯되었고, 맬더스와 리카도를 멀리하고 아담 스미스와 세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려던 데서 정치경제학이 태동했다는 것이다.

예외주의의 위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산업화에 돌입하게 된 도금기(the Gilded Age)에 이르러 확산, 심화되었다. 미국이 구대륙으로부터 격리되어 천년왕국적 공화정을 지속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구대륙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를 겪고 있는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완결이 아니라 역사변화 속에 놓여 있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열려있었던 것이다. 당시의 미국 사회과학자들은 미국이 더 이상 유럽에서 알려진 것과 같은 산업화를 피할 수는 없을지라도, 유럽의 끝없는 계급갈등과 급진적 변화의 필연성은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대응했다. 역사변화의 길은 열어 놓았지만, 미국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미국적 조건들을 발견하려 했던 것이다. 곧, 미국예외주의를 확장시키고 자유주의와 결합시켜야 했다. 1870년대 사회과학자들은 산업화가 미국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직면한 최초의 세대였지만, 자연 법칙과 공화주의 제도들이 유익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불변의 역사적·자연적 토대들을 신속히 발견해냈고, 시간의 파괴적인 효과를 물리쳤던 미국의 특수한 조건들이 지속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 낼 수 있었다(Ross 1991, 138-140).

1880년대와 1890년대에는 산업사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쉽게 통제될 수 없었다. 클라크(John Bates Clark)가 자본과 노동 간의 파괴적 갈등에 대해 고민하고 기딩스(Franklin Giddings)가 근대 산업사회의 사회적 삶의 파괴되고 혼란스런 길에 대해 논의했던 것처럼, 현실 역사 변화의 소용돌이는 급진주의 위협에 보수적으로 대응했던 사람들까지도 빨아들였다. 그러나 급진주의자들은 곧 현실에 의해 좌절하게 되었으며, 보수주의자들은 자연 법칙의 힘과 예외주의 유산에 대한 믿음을 부활시켜 다시 한번 미국을 변함없는 진보의 길 위에 올려놓았다. 원래부터 완벽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적 변화를 촉구해야 하는 부담을 급진주의자들이 지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보수주의자들과 온건파들은 1896년 선거 당시 말 그대로 성조기 아래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자본주의의 궁극적 기약뿐 아니라 여전히 지속되는 미국 제도들의 기약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었다. 윤리적 사회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미국 역사의 완성 속에 자기들 이상의 근거를 두었다. 그러나 상대편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경우에도 생산자 민주주의의 이상은 예외주

의 역사의 규범적 주장보다 한결 포기하기 쉬운 것으로 판명되었다.

1896년 이후 계급투쟁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고, 급진적 운동들이 다시 등장하여 정치적 합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로스의 판단에 따르면, 합의와 갈등의 변증법이 계속되었던 것이다(Ross 1991, 143-162). 그러나 학계에서 사회주의는 사회에서보다 대체로 더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남아야만 했다. 베블렌(Thorstein Veblen)의 경우처럼 사회주의가 가끔 살아남기도 했지만, 대개의 경우 자본주의와 고귀한 의견에 대한 학계의 밀착으로 인해 허용될 만한 사회과학 학설의 경계는 사회주의의 오른쪽에 설정되었다. 영국과 대륙 유럽에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와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영역 안에서 발전한 사회민주주의와 같은 것이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그 속에서 지속적으로 침식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도금기의 갈등은 새로운 자유주의와 새로운 보수주의를 위한 토대를 놓기는 했다. 급진적 사회과학자들은 미국 자본주의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통해 남북전쟁 이전 예외주의의 평화로운 조화를 깨고,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초래된 불평등과 갈등을 폭로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의 통찰은 갈등하는 이해관계와 불가피한 불평등을 인정함으로써 고전적 자유주의의 수용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 새로운 보수주의와 새로운 자유주의는 모두 고전적 자유주의의 원리 위에 세워졌다. 새로운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적 윤리를 포괄하도록 자유주의의 범주를 확대하면서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보정하는 길을 찾게 되었다. 재산과 권력의 폭넓은 분배라는 남북전쟁 이전 예외주의의 이상은 강력한 유산으로 남아 있었으며, 곧 새로운 자유주의 스펙트럼의 좌측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재결집하여 산업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사회주의를 둘러싼 도금기의 갈등이 미국 예외주의의 사회정치적·역사적 토대들을 변형시켰으며, 다가올 수십 년 동안 미국 예외주의의 성격에 대한 갈등이 전개될 조건들을 엿보게 했다는 것이 이 시기에 대해 로스가 주목한 지점이다.

이어지는 혁신기에는 도금기 위기의 영향으로 예외주의의 수정이 이루어졌다고 로스는 평가한다. 경제학계의 피셔(Irving Fisher)와 베블렌(Veblen), 사회학계의 로스(Edward A. Ross)와 쿨리(Charles Cooley) 및 철학계의 듀이(John Dewey)와 같은 새로운 인물들이 예외주의 수정의 선두에 나섰다. 이들은 사회주의와 씨름하면서 자유주의 원리들과 그 역사관을 토대로 분과학문들을 재구축했다. 이에 따라 신고

전경제학과 사회 통제(social control)의 사회학, 그리고 실용주의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 수립되어 20세기 사회과학의 토대가 되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들은 경제학, 사회학 및 정치학이 이론 이론훈과 경험연구의 결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론적 발전과 사회개혁 실천의 결합을 시도했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와 과학적 거리두기의 올바른 융합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로스는 파악한다(Ross 1991, 297-299). 그러나 1920년대로 넘어가면서 미국 사회과학은 또 다른 변화를 겪게 되었다. 도금기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혁신기의 결합적 사고가 가능했다면, 이러한 결합적 사고는 다시 예외주의의 틀 안에서 새로운 틀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혁신기 후반에 등장한 창조적 사회과학자 세대는 기존의 연구경향을 확대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과학 모델들을 창출하면서 미국 사회과학의 윤곽을 재수립했다. 미첼(Wesley Mitchell), 토마스(William Thomas), 파크(Robert Park), 벤틀리(Arthur Bentley)와 비어드(Charles Beard) 등이 현대 미국 사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이해에 적합한 개념과 방법들을 고안했던 것이다. 이들이 재수립한 새로운 사회과학의 윤곽은 현대 세속적 도시사회의 확대와 연쇄적인 정치적 위기들 그리고 증폭되는 변화의 의미들에 대한 반응이었다. 이들의 혁신적 작업은 1920년대 들어 점점 가시화되었는데, 모더니즘적 역사의식의 발전, 전문적 특화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과학적 방법에 대한 철저한 입장 등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과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는 역사-진화론적 사회과학 모델에서 벗어나 단기적 과정들에 초점을 둔 특화된 과학으로 옮겨가는 과학주의의 생성이었다.

로스가 강조하는 1920년대 과학주의의 도래는 많은 방식으로 미국 예외주의의 도금기 위기에 대한 해소를 의미했다. 천년왕국적 공화정이 영원하리라는 종교적 도덕철학적 신념은 이미 무너졌으나, 미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제 사회과학은 그 과정에서 야기되는 사회문제들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을 생산하면 되는 것이었다. 신고전 경제학자들은 먼저 물리과학을 모델로 하여 자연과 인간 본성의 필요에 뿌리를 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제도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 및 일부 정치과학자들은 변화하는 자유주의 세계에 대한 경험 과학을 추구했다. 사회과학자들은 자연주의적 사회과학 자체를 목적으로 세우고, 도구적 실증주의의 영향 아래 실증주의적인 과학적 방법을 탐구의 주요 기준으로 정립하기 시작한 것이다.

1920년대에도 분과학문들 내부에서의 갈등은 계속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

학주의의 승리로 귀결되었다. 경제학의 경우, 제도주의자들이 고전경제학에 도전했지만, 신고전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패러다임 속에 들어온 자유주의적 예외주의 정치학을 무시하면서 제도주의자들의 도전을 과학이 아니라 단순한 좌파 정치학으로 간주하고 무시했다. 제도주의자들도 신고전주의적 가치들을 상대화할 역사 이론의 구성을 지속적으로 추구하지는 못했다. 사회학에서는 행동주의(behaviorism)와 도구적 실증주의가 논쟁을 시작했다. 시카고 사회학자들의 경우는 자유주의적 진화론을 암묵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더 단기적인 과정들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역사주의의 특징적 전제들을 두고 사회학은 두 개의 학파로 분리되었지만, 두 경우 모두 과학주의의 요구들을 수용했다. 정치학에서도 역사정치학의 역사적 현실주의와 규범적 참여에 의해 제한되기는 했지만 과학주의의 영향력이 작용하게 되었다. 명백히 역사적이고 규범적인 정치학 모델들은 발전하지 못했다. 대신 메리엄(Charles Merriam)으로 대표되는 과학적 정치학, 심리학과 결합된 정치학이 지배적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요컨대 단기적 과정에 대해 도구적 실증주의의 방법으로 접근하는 과학주의가 미국 사회과학에 “강림”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현대 미국 사회과학을 과학주의가 지배하게 된 시작이라는 것이다(Ross 1991, 471-472).

3. 함의

지금까지 소개한 로스의 논지는 미국 사회과학계에서 그간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각 분과학문별로 그 타당성은 아직 검증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앞에서 밝힌 우리의 목적상, 로스의 두 가지 핵심적인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나는 미국 사회과학의 역사성이며, 다른 하나는 과학성에 관한 것이다.

로스에 따르면, 미국 사회과학의 뿌리는 미국 예외주의에 있다. 미국이 다른 사회, 특히 구대륙과 다르고, 달라야 한다는 신념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이는 당대 미국사회의 사회문제(Social Question)를 반영한 것이었다. 건국 초기 미국의 최대의 문제는 신생 민주주의가 안정되고 지속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남북전쟁 이전까지 미국 예외주의의 ‘예외’의 대상은 타락한 구대륙의 정치체들이었고, 근본 문제는 신대륙에 구현된 시민적 공화정이 천년왕국적 영원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당시 사회과학자들의 문제의식은 여기에 있었으며, 따라서

튜튼의 기원을 끌어들이고 맬더스를 비판했다.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근본적 사회문제도 계급갈등을 포함한 근대사회의 갈등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제 미국이 역사의 완결이라는 종교적 신념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미국 예외주의의 근본 문제도 더 이상 천년왕국의 지속이 될 수 없었다. 예외주의의 우려대상은 끊임없는 계급갈등에 시달리는 유럽 자본주의가 되었고, 따라서 미국이 예외이려면 계급갈등 없는 산업화를 이루어야 했다. 이를 입증하는 데 이 시기 사회과학자들의 문제의식이 있었다. 터너(Frederick Turner)의 변경론(frontier thesis)처럼, 이제 역사변화에 들어섰고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미국 사회가 구대륙이 보여주고 있는 역사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들을 발견해내려 했던 것이다.

도금기와 혁신기 동안의 지적 정치적 대결을 거치면서 미국 예외주의는 자유주의와 굳게 결합되었고, 사회과학계에서는 미국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합의가 이룩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과학자들의 근본문제는 자유주의적 사회를 어떻게 관리 통제하는가가 되었고, 역사의 궁극적 변화 방향이 해결되었으므로 단기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게 되었다. 과정과 통제의 자유주의적 사회과학이 지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미국 사회과학은 지난 150여 년간 미국사회의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들'과 씨름해 온 것이다. 한계학과와 시카고 사회학, 그리고 듀이, 비어드와 벤틀리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과학의 위대한 업적들은 당대 미국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로스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미국 사회과학은 이 과정을 거쳐 과정과 통제의 과학으로 귀결되었다. 이후 미국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은 단기적 과정과 사회통제에 연관된 다양한 문제로 확산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렇게 본다면, 미국 사회과학이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이 과연 우리 사회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떠오른다. 미국의 역사와 사회 현실 속에서 형성된 미국 사회과학의 문제의식이 우리 사회 현실을 설명하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답은 물론 '선별적 수용'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우리는 벤틀리의 집단정치 이론과 이익집단 개념을 잘 알고 있다. 그렇지만 벤틀리의 『정부과정』(*The Process of Government*)이 미국사회의 무계급성을 주장하고 이익의 궁극적 조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혁신기의 미국사회과학계에서 환영받

있었다는 사실은 생소하며, 더욱이 벤틀리가 의도했던 바가 남북전쟁 이후 깨진 이익의 조화를 복원하기 위해 중산층이 반(反)혁명을 해야 한다는 급진적 정치운동이었음은 거의 알지 못한다. 벤틀리의 집단정치가 우리 현실에 얼마나 적실성이 있을까? 아마 우리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상반된 평가가 모두 가능할 것이다.

미국 사회과학의 역사성, 사회성과 밀접히 연관된 것이 과학성과 보편성의 문제이다. 로스가 보여준 대로라면, 역사세계를 자연화한 미국 사회과학 자체가 '역사적 기획'이다. 그렇다면 미국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객관성과 보편성은 부정될 수 있다. 미국예외주의의 궁극적 귀결로서 과학주의는 단기적 과정에 대한 예측과 통제에 실증적 지식으로 미국 사회과학을 변화시켰다. 실증주의의 공과에 대해서는 그간 수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과학성이 보편적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역사 변화를 통해 단기적 과정과 통제가 사회문제로 남게 된 미국사회에서는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접근 방법이 계량화일 수 있다. 통화공급과 소비자 선택, 투표 등 많은 영역에서 미국 사회과학이 거둔 성과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사회과학이 그렇지 않은 사회에도 적실성을 지닌 보편적 사회과학일 수 있는가? 역사변화와 갈등이 여전히 중대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는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일 수 있는가? 역사변화와 사회갈등에 접근하는 데 보다 나은 과학적 방법은 없는가? 로스처럼 미국 사회과학을 '역사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간 실증적 사회과학이 요구해 온 보편성의 굴레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고 저널리즘적 유사과학을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다. 실증적 사회과학이 미국사회와 같은 사회들의 문제의식을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면, 사회문제가 이와 다른 사회들에서는 다른 과학적 방법들이 보다 적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말이다.

참고문헌

- 김경동. 1986.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설적 고찰." 김경동·안청시 편저, 『한국 사회과학 방법론의 탐색』.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

- 김동춘. 1997.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서울: 창작과 비평사.
- 김문조. 1999. “한국사회학의 위기.” 임희섭 편.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 서울: 나남출판, 193-217.
- 김용학·전효관. 1994.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위기와 그 쟁점: ‘근대적 과학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편. 『세계의 위기와 한국』. 서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52.
- 문태현. 1993. “사회과학 방법론의 갈등과 이론선택의 합리성.” 『대구·경북행정학회보』 제5집, 73-89.
- 서규환. 2007. “한국정치학의 자기정체성 논의에 대한 비판적 논고.” 한국세계학술대회 발표문(2007년 8월 25일, 부산).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1983. 『한국사회과학론: 사회없는 사회과학들이 어떤가』. 서울: 대왕사.
- _____. 1994. 『사회과학의 동향과 전망』. 서울: 한울아카데미.
- _____. 2007. 『사회과학으로의 초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편. 2000. 『사회과학의 이해: 전공선택의 길잡이』.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1977. 『한국 사회과학 연구』. 서울: 범문사.
- 윤근식·서규환·김일영. 1995. “사회과학의 성립.” 『사회과학』 34권 2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7-372.
- 이기홍. 2004. “한국 사회과학의 논리와 과학성.” 『사회과학연구』 43집.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39-57.
- 이만갑. 1979. “한국사회과학 연구방법의 현황.”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한국사회과학의 토착화: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의 토착화를 위한 세미나보고서, 17-27.
- 이용필. 1999. 『사회과학연구와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정복. 1999. “한국정치학의 변화와 발전방향.” 임희섭 편.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 서울: 나남출판, 33-51.
- 이택휘. 2004. “한국 사회과학의 정체성과 한국정치사상사 연구.” 『한국동양정치사상사』 3권 1호, 7-15.
- 임현진. 2000. “한국사회학의 해부: 자아정체성과 유관적합성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평』 19호.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41-68.
- 임희섭 편. 1999. 『사회과학의 새로운 지평』. 서울: 나남출판.
- 한경구. 2000. “한국 인류학 연구의 문제.” 『사회과학논평』 19호. 한국사회과학연구협

- 의회, 95-142.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1977. 『현대사회과학방법론』. 서울: 민음사.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편. 1983. 『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박영사.
- 한국사회과학연구협의회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1979. 『한국 사회과학의 토착화: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과학의 연구방법의 토착화를 위한 세미나보고서.
- 한국산업사회연구회 편. 1994. 『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 연구사: 80·90년대 비판학문의 평가와 전망』. 서울: 한올아카데미.
- 홍승직. 1981. “사회과학과 사회개발.” 『한국사회개발연구』 5권(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70.
- 황성모. 1977. “사회과학의 토착화에 대하여.” 한국사회과학연구소 편. 『현대사회과학 방법론』. 서울: 민음사, 238-248.
- _____. 1983. “한국사회과학의 기본과제와 방향.”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편. 『한국사회과학론: '사회' 없는 사회과학들이 어떤가?』. 서울: 대왕사, 275-297.
- 水田洋 · 長洲一二. 1995. 『사회과학강의: 사회과학발달사』, 장명국 역. 서울: 석담.
- Barber, Willaim J. 1992.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0, No. 2.
- Bateman, Bradley. 2001. “Make a Righteous Number: Social Surveys, the Men and Religion Forward Movement, and Quantification in American Economics.” *History of Economics Society*, 28th Annual Meeting. Wake Forest University. Winston-Salem, North Carolina, Session Program.
- Dimand, Robert W. 2000. “Nineteenth-Century American Feminist Economics; From Caroline Dall to Charlotte Perkins Gilma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90, No. 2(May).
- Gaddies, John Lewis. 1997. “History, Theory, and Common Ground.” *International Security* 22, No. 1(Summer).
- Graff, Harvey J. 2001. “The Shock of the ‘New Histories’: Social Science Histories and Historical Literacies.” Presidential Address, Social Science History Association. *Social Science History* 25, No. 4(Winter)[reprinted in Harvey J. Graff, Leslie Page Moch and Philip McMichael, eds. 2003. *Looking Backward and Looking Forward: Perspectives in Social Science Histor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Hopf, Ted, and John Lewis Gaddies. 1993. “Getting the End of Cold War Wrong.” *International Security* 18, No. 2(Autumn).
- Leonard, Thomas. 2003. “More Merciful and Not Less Effective: Eugenics and American Economics in the Progressive Era.”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35, No. 4(Winter).
- Mohr, John W., and Vincent Duquenne. 1997. “The Duality of Culture and Practice: Poverty Relief

- in New York City, 1888-1917." *Theory and Society* 26, No. 2/3(April-June).
- Murphy, Craig N. 1996. "Seeing Woman, Reorganizing Gender, Recasting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0, No. 3(Summer).
- Oren, Ido. 1995. "The Subjectivity of the Democratic Peace: Changing US Perceptions of Imperial Germany." *International Security* 20, No. 2(Autumn).
- Rosenau, Pauline Marie. 1992. *Post-Modernism and the Social Sciences: Insights, Inroads, and Intrusio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s, Dorothy. 1991.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bin, William A. 1995. "Studying Society: The Making of Recent Social Trends in the United States, 1929-1933." *Theory and Society* 24, No. 4(August).
- Wald, Priscilla. 2002. "Communicable Americanism: Contagion, Geographic Fictions, and the Sociological Legacy of Robert E. Park." *Culture and Contagion, a special issue of American Literary History* 14, No. 4(Winter).

ABSTRACT

Is There to be the Identity of Korean Social Science?
In Light of Dorothy Ross’s Discussion of
the Origins of American Social Science

Chang Jae Baik | Seoul National University

Byounghee Jung |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intends to stir up debates on the identity of Korean social science. Social science in Korea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its lack of identity, originality and relevance to Korean society. Critics say that Korean social science has lost its own identity due to the heavy influence by imported theories, particularly of American social science and that universality and scientism claimed by American social science have deprived Korean social science of its own problematics and methods. On the other hand, some “scientists” simply ignore the very concept of the identity of Korean social science on the ground that science is universal. Based on Dorothy Ross’s judgment of the origins — and identity — of American social science, this article claims that American social science, the champion of scientism and the one that has most heavily imposed the burden of scientism on Korean social science, is also the very product of American society and its social question, far from being universalistic. The implication is clear: Korean social science should try to dwell on its own social questions by its own appropriate methods, freed from rigid conception of science and universality.

Keywords: identity of social science, Korean social science, American social science, American exceptionalism, Dorothy Ross